

한 번 시공으로 만년을 보장하는

**대원 청동주물기와**

전화 : (02) 739 - 8745 · 735 - 2344

#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영예회장 노태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주)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0월 15일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 불심모아 청정국토 가꾼다

본사·5개 불교단체 그린스카우트 가입  
환경 파수꾼 선언... 개선활동 지속전개

환경을 지키는 것은 자연의 본성을 살리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일고있다. 환경운동은 곧 인간의 본성을 찾는 도덕성 회복운동이란 공감대속에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과 함께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펼친다. 그 첫 발걸음으로 지난 10일, 세계최초로 창설된 '그린스카우트'에 가입하고 불교계 환경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본사의 그린스카우트 가입에 이어 불교계에서는 '공예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원주)' '보리밭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 '공명사' '침묵사(주지 법운)' 등 5개의 불교단체가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맑은 물 되찾기 운동연합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그린스카우트 운동은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모두가 환경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생활속에서 무심코 행하고있는 환경파괴를 중단하고 감시하는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이다. 이를 위해 가입단체들은 단체별로 환경강연회, 학술제, 예술제, 사진전등을 개최하고 환경감시기구를 조직하여 자체 조사와 토론회 모임을 전개하게 된다. 「현대불교」를 비롯한 불교간

체는 이러한 그린스카우트의 운동을 중심으로 불교계 환경 파수꾼이 될 것을 서약한 것이다. 본사와 불교단체는 앞으로 사할, 가정, 직장별로 지켜야 할 세부적 환경보호 실천사항등을 공동제정, 불자들의 환경운동 실천목표로 제시하게 된다.

보리밭송모니터회 김재일 회장은 본지와외의 그린스카우트운동 전개에 앞서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전제하고 "방송프로그램에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전파를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역시 현재 펼치고 있는 전국불교어린이지도자 강습회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자들의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각 단체별로 환경보호사업을 펼쳐 본지와 함께 그린스카우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불교계에는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등의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종단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난 해부터 전각에서 '청정국토가꾸기운동'을 종단차원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앞으로 불교계의 환경현황과 대책들에 관한 기획을 연재하는등 불교계의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전국규모의 그린스카우트 또는 12일 정식으로 창단 했다. 「현대불교」를 비롯한 불교간



들리는가, 시공을 넘는 비로봉의 설법이...  
강경 위에 흐르는 저 신 금강불심 하나로 모아 가야 할 정토의 영신에는 지금껏 가물땀이 눈부시(2)라. 지금은 걸 수 없는 땅, 오를 수 없는 신, 그러나 가야할 땅, 가서 한마음을 뉘어 할 비로봉(2)의 생생한 설법. 여덟의 동상이 빛나네 만오천 봉우리 계곡마다 있어있을 불보살들이 통일과 인류평화의 사명에 찬탄한 법문을 수놓아 마침내 피아날 세계 일화. 그 진한 황기는 어둡고 황폐한 중생계에 새 희망의 아침을 열어주리라. (그림) 김재 정선(조선화가 화가)의 「금강전도」(국보172호) · 컴퓨터 처리 현대불교전산실

### 창간사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은 늘 공존한다. 과거는 경멸·반성·교훈의 모습으로 오늘에 살아 있고 미래는 예견·결의·희망의 얼굴로 오늘과 함께 한다.

이것은 철학이다. 현대불교신문은 바로 그 오늘의 의미를 뚜렷이 인식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반문한다. 불교는 세계복은 어려운 종교인가? 한국불교는 이제 시대의 약방문으로 더 이상 환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단호하다. 불교, 즉 붓다의 가르침이 낡은 게 아니라 불교인이 구태의연할 뿐이다.

세계는 병원이고 인류는 치료되어야 할 환자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발원 동기이자 깨달음의 골자이다.

그렇다면 어찌 불교가 묶여 굳어가는 가르침일 수 있겠나. 불교는 영원한 오늘을 약방문으로 생명력이다. 다만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시대의 고뇌를 적극 감싸안지 못함으로써, 또한 현대인에게 알맞은 삶 의 모델, 사교의 모델을 쉽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오해와 평가절하를 자초한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경향은 안타깝게도 한국 불교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현대 산업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이 끊어터져도 돌아와야 산중에 은거하는 소극적 자세가 그러하고, 중생구원의 본분(本分)보다 기복 신앙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뒤죽박죽이 되는 분정·송사(送死)·정화사대로 배불(排佛)의 기운을 자초하는 행태가 그러하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대개혁의 기풍 진작을 고대하면서 우리들이 할 일로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를 제시한다.

불교의 현대화란 교리의 재해석이나 개작(改作)을 뜻하지 않는다.

### 가르침속에 한마음 될때까지

그것은 현대인이면 누구나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다.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 거북살스럼지 않게 납득시키는 일이다. 가르침을 맛 볼 수록 삼이 너그러지게 이끄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화는 붓다의 정신으로 되돌아간 동시에 가르침의 함뿔에 오늘이라는 뜻을 입히는 노력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사회 병리현상, 인간소외의 문제, 생태계 파괴 등의 과제도 현대화의 각본으로 삼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불교의 생활화 역시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다. 그냥 일상 생활 가운데 불법을 실천하고, 사회가 바로 가르침의 실천 도량이 되게 하자는, 다시말해 가르침이 곧 생활도리요, 생활도리가 곧 가르침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를 위해 우리는 현상으로 뛰어들어 힘 닿는 대로 실천 수행을 북돋우려 한다. 그것은 선도(先導)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실천 수행이기도 하다.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온 겨레가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한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다방면으로 계속할 각오이다. 우리가 이일에 정진, 또 정진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한국 불교의 세계화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불교가 현대 과학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생동감 넘치는 가르침으로 온 인류를 감싸안게 되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현대불교는 언제나 거짓없는 목탁소리를 낼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특정 사찰·특정 종파의 대변자이기를 거부하고 다만 붓다의 기광자임을 고집할 것이며, 따라서 파사현정(破沙顯正)의 정신만이 우리를 잡아줄 뿐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언론의 자세를 지켜 나갈 것이다.

**총무원장 11월 22일 선출**  
조계종 「개혁」 마무리 일정 확정

조계종 개혁회의의 마무리 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개혁회의(의장 석주)는 지난 12일 제 10차 개혁회의의 결과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를 11월 22일 실시하기로 하고 중앙·교구총회의원 선거는 11월 7일 처리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총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총무원장 선거인단 3백20명을 구성, 새 총무원장을 선출 한다.

한편 개혁회의는 10일 회의에서 중앙총회법 특별분당사찰 지정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총회의원선거법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12일 선거일자를 공고했다.

**창간특집 24면 발행**

국내외 축하메시지	2면	부처님을 달아가는 사람들	6면
축사 '여기 독수리봉 바람소리'	3면		
29대 불심 박상일거사	7면	<b>특집 II 한국불교 제지리 훑어대다</b>	
한국의 불교지도	8-9면	주제대담 불교는 21세기의 희망	17면
길을 묻는 이에게	10면	최담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	18면
신라성인 김지장 열반현장	12면	한국불교 어디에 서있나	20면
		불자교수 1백인의 대답	21면
		한국불교 거둔기 21세	21면
<b>특집 I 생활속에 피어나라 연꽃처럼</b>			
불자 108명에게 들어본 오계	4면	2020년 가상현상	
97세 보현행자 문성 큰스님	5면	공트, 타임머신 보고서	23면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 중전기 및 송변전 설비: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 (유형, SF<sub>6</sub>, GAS, 전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배전반, 송전기 및 변전설비, 변압, 절구조류
- 산업용 기기 및 설비: 펌프, 모터, 송풍기, 크레인, 수문, 사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 기계장치, 화학장치, 주조설비
- 회전기기: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에보모터, 브레이크 모터, CLS 전동기, 발전기
-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계동장치
- 전력전자 및 FA: 각종 송고, UPS, 프로그램머 볼 컨트롤러(PLC), 수-제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 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동장치, 각종 컨트롤러, 교류전자 정류기, 개폐기(MCMC), 폐선용 차단기(NFB), 인공차단기(VCB)
- 건설: 표상설비, 수력발전, 각종 건축 공사

FA기기, 산업용기기, 중전기, 전력전자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